

# “일과 휴가를 동시에” 블루 워케이션 선보인다

전남도, 여수서 시범 운영 후 내년부터 정식 운영 계획  
수요·테마 맞춤형으로 대표 융복합 관광상품 육성

전남도가 천혜의 섬·해양·산림 자원과 맛깔난 남도음식을 결합한 ‘전남블루 워케이션 프로그램’ 처음으로 선보인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새로운 관광 트렌드다.

전남은 최근 전국체전 등 메가 이벤트와 함께 ‘2022~2023 전남방문의 해 성공’ 운영,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 등으로 ‘전국 3대 여름 휴가지’, ‘전국 여름 휴가지 만족도 3위’, ‘50대 이상 관광소비 비중 전국 1

위’, ‘외국인 관광객 카드 이용 증가율 전국 1위’ 등 국내 최고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전남 블루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작한다.

전남도는 시범 운영을 통해 2024년 정식 운영 세부 프로그램을 최종 확정하고 전남 대표 융복합 관광상품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시·군 공모를 진행한 결과 여수시가 워케이션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워케이션 홍보·유치를 위해 서울경제진흥원, 산단 입주기업협의체, 호텔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1월부터 시범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전남블루 워케이션은 ‘수요자 맞춤형’과 ‘테마별 맞춤형’으로 나눠 운영한다.

수요자 맞춤형은 엠지(MZ)세대를 겨냥해 도심형과 40~50대 가족중심형으로 준비했다.

테마 맞춤형은 지역 인기 관광지와 미식, 레포츠 등을 즐기는 관광지형 프로그램과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일을 병행하는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운영한다.

향후 기업 대상 팜투어, 수요자 선호도 조사, 호텔·리조트, 공공기관

업무제휴, 주요 온라인 여행사(OTA) 홍보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전남관광플랫폼(J-TaaS)에 워케이션 구독회원 서비스를 도입하고, 전남블루 워케이션 안내책 발간을 통해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에 나설 예정이다.

전남도는 기업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 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1시·군 1워케이션 특화마을’ 조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선도사업으로 올해부터 추진 중인 섬진강권 스테이 기능 중심의 워케이션 거점 조성사업은 연내 조기 착공을 서두르고 있다.

공공비축미 매입…신동진·새청무 2개 품종  
광주시, 오늘 동곡동서 첫 수매…지역생산 건조벼 총 3179톤

광주시는 2일 광산구 동곡동에서 2023년산 건조벼 첫 매입을 시작으로 오는 23일까지 총 3179t의 공공비축미를 매입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올해 정부매입물량 40만 가운데 3179t을 배정받았다. 이는 특광역시 중 인천광역시 다음으로 많은 공공비축 매입량이다. 시는 건조벼 2855t,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등 농림부 우선 농가직접 배정물량 324t 등을 매입한다. 매입품종은 신동진·새청무 2개 품종이다.

2023년산 공공비축미는 매입 직후 포대 당 우선지급금 3만 원을 지

급하고 추가지급금은 수확기 평균 산지쌀값을 기준으로 12월 31일까지 최종 지급한다.

원활한 매입을 위해 4개 자치구에서 수매절차를 진행하며, 12곳의 정부양곡 보관창고로 나눠 보관한다. 보관물량은 2024년 1월부터 복지용 쌀로 가공·도정, 사회취약계층에 배부할 계획이다.

남택송 농업동물정책과장은 “수매현장에 차량 유도원과 수매 안전요원을 상주시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일상 기자

‘럼피스킨병’ 차단…재난기금 5억 긴급 투입  
전남도, 시·군 방역물품 지원 확대…추가 확산 차단 총력

전남도가 1일 소 럼피스킨병 방역대책 강화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5억원을 도와 22개 시·군에 긴급 투입키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소 럼피스킨 대응 재난대책 회의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전남도는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한 백신 예방접종과 함께 소독에 필요한 방역복, 흡혈공중방제약품, 소독약 구입 등에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할 방침이다.

전남에선 지난달 29일 무안 망운

면 한우 농가에서 럼피스킨병(LSD)이 처음으로 발병했다.

전남도는 첫 확진 사례가 나오자 즉시 전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각 가동했다.

선제적 확산 차단 조치로 발병지인 무안과 경계한 함평군과 신안군엔 방제복 5900벌과 소독제를 우선 지원했다.

전남도는 백신 예방접종이 오는 10일까지 완료되고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약 3주가 소요됨을 감안해 집중 방제를 통한 추가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김 호 기자

실전 같은 방사능 방재 훈련  
실시…도민 보호 강화

전남도가 1일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누출 사고에 대비하고 강화된 도민 보호 체계 수립을 위한 실재 방재 훈련을 실시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영광 한빛원전 3호기의 방사능 누출 사고를 가정한 ‘2023 한빛원전 방사능방재 연합훈련’이 영광·무안·함평·장성·전북 고창·부안 일원에서 이뤄졌다.

이번 연합훈련은 2019년 이후 4년 만으로 행정안전부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해 실시했다.

훈련에는 중앙부처, 지자체, 경찰, 소방, 주민 등 100여 기관, 3000여명이 참여했다.

한빛원전 인근 해역에 발생한 규모 6.0 지진의 영향으로 중대 사고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원전 사고 수습과 주민 보호조치 훈련 등으로 진행됐다.

도상훈련은 전남도 재난종합상황실에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방사선비상에 따른 백색·청색·적색 위기 경보 단계별 영상회의를 했다.

현장 훈련은 방사선 적색 비상 발령 이후 초동조치의 핵심인 주민 보호조치를 중점으로 이뤄졌다.

방사선비상 경보 상황 전파, 옥내 대피·교통통제, 주민 분산, 갑상샘 방호약품 배포, 이재민 구호 요령을 숙지·숙달했다.



백신접종 현장 점검 나선 김영록 지사

김영록 지사가 1일 오후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 방역 현장인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덕산농장을 방문, 백신접종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전남도 제공

## 국제 인공지능학술대회 ‘아이콘 광주 2023’ 개막

내일까지 광주과학기술원 AI 기술 동향·미래전망 공유

국제인공지능학술대회인 ‘아이콘(AICON) 광주 2023’이 1일 광주과학기술원 오통관에서 개막식을 갖고 사흘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아이콘 광주 2023’은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의 하나로 광주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주관한다.

개막식에서 강 시장은 “광주는 대

한민국의 다른 도시보다 앞서 인공지능(AI)산업에 주목했고 투자해 왔다”며 “국내 유일의 국가인공지능집적단지 조성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데이터센터 개관 준비를 완료했다. 110개가 넘는 기업이 광주로 왔다. 200명이 넘는 창업가들이 광주에서 기업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유일의 인공지능 집적단지가 조성되면서 국내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데이터센터가 문을 열

예정이다. 1단계 사업의 핵심인 인프라 구축이 마무리 되면 인공지능 실증도시 광주가 될 것임을 확인한다”며 “이제 광주는 1단계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2단계 사업을 위한 미래비전을 점검하고 꼼꼼히 기획해 인공지능 실증도시 광주로, 국가 인공지능 허브로 올라서야 한다”고 밝혔다.

개막식 뒤 강 시장과 내빈들은 인공지능 기업 전시체험 공간과 LG전자 파빌리온의 특별 홍보관을 둘러봤다.

/조일상 기자

“내년 교통약자 전용차량 법정대수 100% 확보”  
광주시, 차량 1대당 운전원도 1.2명 확충…이동권 강화

광주시는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를 위해 전용차량 법정대수를 내년까지 100% 도입하는 한편 차량 1대당 운전원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자체는 휠체어 탑승리프트가 장착된 전용차량을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등이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를 운행해야 한다.

시행 규칙에 따라 시는 전용차량을 128대 운행해야 한다. 현재 광주시는 법정도입 기준에서 2대 부족한 126대를 운행하고 있다.

지난 8월 10대를 신규 도입했으며, 국비 등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연말까지 1대를 추가해 법정도입률

99.2%인 127대를 운행할 예정이다.

내년 본예산 확보를 통해 1대를 추가 도입, 법정대수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시는 전용차량 가동률 제고를 위한 운전원 확보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 6월 운전원 18명을 증원, 전용차량 1대 당 운전원을 1.2명 수준으로 유지했다.

시는 내년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상황 속 원활한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해 차량 1대당 운전원 1.2명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운전원 14명의 증원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조일상 기자

광고문의 : 062-363-8800

전화 한통화로 광고효과를 확인하세요

신문광고 매체 모든 것

호남매일에 맡겨주십시오

|             |                                                     |
|-------------|-----------------------------------------------------|
| 광고광고        | 대리점모집 및 사원모집광고, 사무실 이전광고, 결산공고, 분실광고, 정부 및 관공서 광고 등 |
| 준공고광고       | 영업(PR)광고와 공고광고가 혼합된 광고                              |
| 부동산광고       | 부동산 관련광고와 분양 영업광고 일반적 상품광고, 기업PR 광고, 세일광고 등         |
| 정치 및 긴급성 광고 | 성명서, 호소문, 해명서 등 긴급을 요하는 광고와 정치단체(정당)에서 하는 정치광고      |
| 안내광고        | 구인, 구직, 부동산 임대나 매입, 중고품 판매, 결혼상담 등 각종 생활정보 광고       |

광고접수 : 062-363-8800 FAX:062-362-0078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 이메일:honamnews@hanmail.net